



제목	이스라엘종교사 2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크리스찬다이제스트
발행일	2004. 9. 25.
저자	라이너 알베르츠 강성열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476
ISBN 또는 ISSN	978-8944703973

내용 요약

이 책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로부터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종교사를 고대 근동 종교들과 이스라엘 사회사에 비추어 연구한 두 권의 시리즈 중 두 번째 책이다.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이스라엘종교사 1』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해당하는 국가 이전 시기의 이스라엘 종교사와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종교사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책인 『이스라엘종교사 2』는 포로기부터 헬레니즘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다.

3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첫째 포로기의 이스라엘 종교사를 다루고, 둘째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종교사를 다루며, 셋째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사를 개관하고 있다. 저자는 포로기에 그 이전의 이스라엘 종교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 한편, 동시에 이스라엘 종교의 갱신의 기초가 놓인 시기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종교사를 다루는 장에서 저자는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제국과의 관계에 주목한다.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그 이전의 제국인 앗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통치방법과는 달리, 피지배국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포로민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었으며 지역 제의의 회복을 묵인하거나 지원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포로민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며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 저자는 포로기 이후 시대 이스라엘 종교사의 특징을 ‘분열과 통합의 변증법’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특징은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과 연관된다고 주장한다.